

미얀마 민중봉기의 국제적 의의에 관한 몇 가지 단상

미하엘 프리브스팅,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국제서기, 2021년 7월 1일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과 사회주의통합당 (CS 아르헨티나)은 미얀마에서 군부독재에 반대하는 민중봉기를 그 시작 때부터 지지했다.[1]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은 미얀마에서의 해방투쟁 그 자체의 진보적 역할을 인정해서이기도 하지만, 그와 함께 국제 계급투쟁에 이 봉기가 갖는 중요성을 이해해서이기도 하다.

우리는 두 달 전 이 봉기에 관한 공동성명에서 이렇게 말했다. “끝으로, 우리는 피억압 대중의 해방투쟁에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미얀마 현 사태의 국제적 의의에 주목해 줄 것을 요청한다. 미얀마는 이 지역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국과 인도라는 두 열강의 인접 국가다. 또 이 지역의 다른 두 주요 국가인 태국과 말레이시아와도 국경을 접하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EU, 러시아 등 모든 제국주의 강대국들이 자신의 지정학적 이익을 위해 미얀마 내전을 이용하려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미얀마의 혁명투쟁은 세계정치 일반과 특수하게는 국제 계급투쟁에 영향을 미친다. 민중봉기가 미얀마를 동남아시아의 시리아로 전화시킬 수 있다는 강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시리아에서의 해방투쟁이 아랍 혁명의 핵심 축이 되었듯이, 미얀마에서의 민중봉기는 아시아에서 혁명적 과정의 초점이 될지도 모른다!”[2]

동아시아·남아시아 - 자본주의 세계경제와 국제노동자계급 투쟁에 핵심 지역

이 글에서 우리는 이러한 맑스주의적 접근법을 보다 구체화하고자 한다. 먼저 미얀마는 지리적으로 동아시아 · 동남아시아 · 남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시작하자. 우리가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이 지역은 자본주의 세계경제에서 주요 지위 — 심지어는 가장 중요한 지위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 를 점하고 있다.[3] 세계 제조업 생산 면에서 선도적인 12개국 중 5개국이 이 지역에 있다. (여기에 러시아는 빠져 있는데, 실제로는 러시아도 부분적으로는 아시아 나라다). 중국은 전 세계 제조업 생산의 25%를 점하는 글로벌 리더다. 이들 5개국 (중국, 일본, 한국, 인도 및 인도네시아)은 전 세계 제조업 생산의 약 43%를 담당하고 있다. 여기에 동아시아·동남아시아·남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을 추가하면, 이 지역이 전 세계 산업 생산의 최소 절반을 차지한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4]

세계 프롤레타리아트의 지역별 분포 면에서도 비슷한 집중도를 이 지역에서 볼 수 있다. RCIT가 여러 문서를 통해 보여주었듯이, 세계 프롤레타리아트의 다수가 동아시아·동남아시아·남아시아에 살고 있다. 오늘, 전 세계 임금노동자의 50.1%에 해당하는 8억6천6백만 명이 이 지역에 살고 있다. 그리고 국제 산업 노동인력 면에서 이 지역의 점유율은 그보다도 더 높은 60%다.[5]

요컨대 미얀마 민중항쟁은 세계자본주의와 국제노동자계급투쟁 양쪽 모두에게 최고의 중요성을 지닌 지역의 심장부에서 전개되고 있는 싸움이다! 이것이 지시하는 바는 사회주의자들이

미얀마 민중봉기를 유보 없이 전면적으로 지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항쟁의 정당하고 진보적인 대의 때문만이 아니라, 이 항쟁이 글로벌 계급투쟁의 초점을 이루고 있는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강대국들의 표적이 되고 있는 지역

동아시아·동남아시아·남아시아 지역의 거대한 경제적 중요성은 당연히 세계정치에서도 거대한 중요성을 부여 받는다. 중동을 제외하고 아시아 지역은 제국주의 강대국들 (및 한국 같은 보다 작은 제국주의 국가들[6]이나 인도 같은 지역 열강들[7]) 간 패권경쟁이 가장 첨예한 형태를 띠는 중요한 무대다. 다섯 강대국 미국, 중국, EU, 러시아, 일본 중 EU를 제외한 네 강대국이 이 지역에 위치해 있거나 또는 가까이 있다. 미국은 지리적으로 동아시아·남아시아에 위치해 있지는 않지만, 이 지역에 강력한 주둔군 (여러 기지, 강력한 상설해군 등)을 가지고 있고 일본, 한국, 필리핀 같은 나라들과 안보조약을 맺고 있다. 그리고 유럽 강대국들은 이 지역에 주둔군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동아시아·남아시아가 자신의 경제적 이해에 중요성이 더해 감에 따라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배가하고 있다.

강대국 패권쟁투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문서들을 통해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더 세부적으로 나아가지는 않을 것이며[8], 다만 동아시아·동남아시아·남아시아 지역이 미·중 간에 상시 긴장의 현장일 뿐만 아니라 중·일 간[9], 한·일 간[10], 중국·인도 간[11], 북·미 간[12], 인도·파키스탄 간[13]에도 상시 긴장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는 것으로 국한하겠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쿠릴 열도를 둘러싼 러·일 간의 미해결 분쟁이 있다.

간단히 말해서 미얀마는 모든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표적이 되고 있는 지역이자, 향후 몇 년 안에 본격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 다시 중동을 제외하고는 — 가장 높은 지역인 동아시아·남아시아의 중심에 놓여 있다. 우리가 최근 글에서 언급했듯이, 미국에서 여러 군 고위 지휘관들이 이르면 2024년 또는 2026년에 동아시아에서 중국과의 전쟁을 예상하고 있다.[14]

그러므로 강대국들이 미얀마 사태에 개입하려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부끄럼 없이 군부정권을 편 든다.[15] 미·유럽 제국주의자들은 구금된 아웅산 수치와 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 군부쿠데타에 반대해 왔다. 그리고 미얀마에 상당한 비즈니스 이해관계가 있는 일본은 공공연히 서방 동맹들을 불쾌하게 하지 않는 선에서 군사정권과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16]

요약하자면, 미얀마가 그 중심에 위치한 이 지역에 대한 모든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한편으로는 중·러가 군부정권을 직접적으로 지지하고, 다른 한편으로 미·EU가 제재를 가하고 외교적 항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얀마 민중봉기에 필요한 것은 이른바 “국제사회”의 개입이 아니라 국제연대운동이다. 중·러의 군부정권 지지에 반대하는 싸움, 군부정권이 맺고 있는 비즈니스 커넥션을 노동자계급 직접행동으로 타격하는 싸움, 모든 강대국으로부터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독

자성 견지, 제국주의적 제재 (유엔 또는 강대국에 의한 제재)에 대한 지지 거부 등등.

미얀마 민중봉기가 남아시아·동아시아에서 혁명적 과정의 기폭제일 수 있을까?

미얀마 민중봉기가 남아시아·동아시아에서 혁명적 과정의 불씨가 될 수 있을지 문제를 간략히 짚어보자. 우리가 성명에서 지적했듯이, 중요한 지점에서 미얀마 사태는 아랍 혁명과 매우 닮았다.

한편 중요한 차이점도 있다. 아랍 혁명은 역사, 문화, 언어, 종교 등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에서 일어났다. 그 때문에 2010년 12월/ 2011년 1월 튀니지의 봉기가 리비아, 이집트, 시리아, 예멘과 그 밖의 아랍 나라들에서 곧바로 혁명적 과정을 촉발한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17] 여기에 더해 아랍 혁명은 전 세계에 18억 인구를 가지고 있는 글로벌 무슬림 공동체 (움마)에 영향을 미쳤다.

미얀마와 이 지역 내 다른 나라들 간에는 그와 같은 긴밀한 유대가 없다. 알다시피 범아랍주의나 글로벌 무슬림 연대 같은 정서는 있지만 범아시아주의 같은 정서는 없다. 이 점에서 볼 때 미얀마 민중봉기의 경우, 이 지역 혁명적 과정에 미칠 국제적 영향의 잠재력은 보다 제한적이다.

다른 한편으로 동아시아·남아시아 지역은 이미 최근 과거에 일련의 중요한 계급투쟁을 경험했다. 예를 들어 인도의 거대한 농민운동[18], 태국의 민중시위[19], 홍콩의 민중항쟁[20]이 있고, 여기에 더해 인도 점령지 카슈미르에서 계속되고 있는 영웅적 인티파다가 있다.[21]

다시 말해, 미얀마 민중봉기를 지역 전체의 혁명적 과정으로 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련의 출발점들이 존재한다. 실제로 태국, 홍콩, 미얀마의 활동가들 간에는 이른바 밀크티 동맹 등과 같은 유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

봉기가 일국적으로 고립된 채 남아 있지 않도록 혁명 투쟁의 국제화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그것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혁명가들의 임무다.

개량주의 좌익의 혼란과 배반

끝으로, 미얀마 민중봉기와 국제 연대 및 봉기의 국제화 문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한다. 이른바 "좌파"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이미 다른 데서 지적했듯이, 국제 노동자·민중운동의 많은 부분들이 미얀마 봉기를 그 세계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무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제국주의 나라들의 진보·좌파 세력 사이에 일종의 제국주의-귀족주의적 오만함이 상당 부분 존재한다. 북미와 서유럽의

좌파는 많은 부분 국내 노동관료 및 자유주의 국가 기관들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고, 따라서 "우수한" 제국주의 문명 관점에 강력히 동화되어 있다. 그들은 국제 프롤레타리아트 (대체로 남반구와 아시아에 그 중심이 있는)의 입장에 설 수도 없고, 서지도 않는다.[22]

러시아의 "좌파"가 더 나은 것도 아니다. 훨씬 더 부끄러움 없이 "애국적"이며, "대 러시아 세계 (Russkij Mir)"라는 반동적 이데올로기·세계관을 옹호, 전파하고 있다.[23] 그리고 중국에서는 독립 좌파의 존재가 스탈린주의-자본가 정권에 의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오직 소규모의 지하 활동 그룹들만이 (종종 영웅적인 환경 속에서) 존재한다.

이미 10년 넘어 지속된 아랍 혁명과 관련해서도 이들 "좌파"의 비슷한 무시 태도를 볼 수 있었고, 지금도 볼 수 있다!

많은 개량주의·중도주의 조직들이 모든 제국주의 강대국들에 반대하는 데 광범위하게 실패하고 있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좌익의 많은 부분이 중·러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인정하길 거부한다. 그리하여 베이징/모스크바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정권에 대항하여 민중 봉기가 일어나면, 이들 "좌파"는 그 봉기를 지지하길 거부한다. 이미 수년 동안 우리는 이들 "좌파"가 시리아 혁명을 편 드는 데 실패하고 만 데서 이것을 보아왔다.[24] 중국과 러시아의 지배계급이 미얀마 군부정권을 지지함에 따라 이들 "좌파"는 민중봉기를 홀로 남겨두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제국주의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남반구 여러 나라에서도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개량주의·중도주의 좌익이 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강하게 친중 입장을 취하고 있는 볼리바르주의 또는 카스트로-차베스주의 세력들이나, 범아프리카 운동 내 각종 친 스탈린주의 세력들이 그러한 예들이다.

요약하자면, 이들 "좌파"는 맑스주의적 반제국주의를 부르주아 "지정학주의"로 대체한다. 그 구체적인 결과는 시리아에서, 그리고 지금 미얀마에서와 같은 중대한 해방투쟁에 대한 배반이다.

이 모든 정치적 실패는 노동자계급 지도력 위기를 극복하고 개량주의·관료주의 당들을 진정한 혁명적 지도부로 교체해야 할 절실한 필요를 다시 한 번 보여준다. 혁명적 세계당을 건설하는 것이 오늘 맑스주의자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이유다. RCIT는 이 위대한, 실로 역사적인 임무에 모든 힘을 쏟고 있다!

[1] 미얀마 군사쿠데타에 관한 우리의 모든 문서가 다음의 RCIT 웹사이트 상의 별도 하위 페이지에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collection-of-articles-on-the-military-coup-in-myanmar/>

[2] Myanmar: International Solidarity with the Popular Uprising! Arms for the revolutionary masses! Down with the imperialist masters of the Tatmadaw - China

and Russia! No illusions in US and European imperialism! 6 May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myanmar-international-solidarity-wit
h-popular-uprising/#anker_1](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myanmar-international-solidarity-with-popular-uprising/#anker_1) [미얀마 민중봉기에 연대를!]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myanmar-international-solidarity-wit
h-popular-uprising/#anker_3](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myanmar-international-solidarity-wit-h-popular-uprising/#anker_3)]

[3] 2016년 세계대회에서 채택한 RCIT 강령 문서 <혁명적 해방 선언: 쇠퇴하는 자본주의에 맞선 해방투쟁의 임무>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세계 인구의 60%가 거주하고 있고 주요 제국주의 강대국들 (중국, 일본, 러시아)과 보다 작은 제국주의 국가들 (남한, 호주), 그리고 중요한 반식민지들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같은)이 존재하는 아시아는 미래의 세계 혁명적 과정에서 단일 대륙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대륙일 것이다.” (p. 28, <https://www.thecommunists.net/rcit-program-2016/> [쇠퇴하는 자본주의에 맞선 해방투쟁의 임무]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rcit-manifesto-2016-korean/>]). 우리는 2021년 4월 3차 세계대회에서 채택한 가장 최근의 <선언>에서도 이 점을 재차 강조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자본주의 가치 생산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본거지이자 거의 모든 강대국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중요성이 있다.” (p. 13, <https://www.thecommunists.net/rcit-fire-manifesto-2021/>). 이 문제를 보다 상세하게 다룬 다음 책자도 보라. Michael Pröbsting: The Great Robbery of the South. Continuity and Changes in the Super-Exploitation of the Semi-Colonial World by Monopoly Capital Consequences for the Marxist Theory of Imperialism, RCIT Books, Vienna 2013, pp. 382-385, <http://www.great-robbery-of-the-south.net/>.

[4]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Industrial Development Report 2020. Industrializing in the digital age, Vienna 2019, p. 145

[5] 세계 프롤레타리아트 구성 변화와 그것이 혁명 전략에 미치는 결과에 대한 RCIT의 분석을 가장 포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문헌으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The Great Robbery of the South. Continuity and Changes in the Super-Exploitation of the Semi-Colonial World by Monopoly Capital Consequences for the Marxist Theory of Imperialism, 2013, <http://www.great-robbery-of-the-south.net/>. 다음도 보라. chapter III in Michael Pröbsting: Marxism and the United Front Tactic Today. The Struggle for Proletarian Hegemony in the Liberation Movement in Semi-Colonial and Imperialist Countries in the present Period, RCIT Books, Vienna 2016,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bookunited-front/>. 같은 저자의 다음 기사들도 보라. On the Composition of the International Working Class. A new report of the UN's International Labour Office with interesting figures about social developments between 2000 and 2018, 25 February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on-the-composition-of-the-international-working-class/> [국제 노동자계급의 구성에 대하여]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compos>

[tion-of-international-working-class/](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once-again-on-the-composition-of-the-international-working-class/)]; Once again on the Composition of the International Working Class. Some additional information which confirm the shift away from the old imperialist countries towards the South as well as China, 10 March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once-again-on-the-composition-of-the-international-working-class/>; Changes in the Composition of the International Working Class. Some interesting findings from a new report of the UN's International Labour Office, 30 June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anges-in-composition-of-international-working-class/> [<세계 노동자계급 구성 변화>];

[6] 제국주의 국가로서의 남한에 대한 RCIT의 분석으로는, 다음 팸플릿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South Korea as an Imperialist Power. On the nature of South Korean monopoly capital and the ensuing programmatic tasks of the workers vanguard, December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study-on-south-korea-as-an-imperialist-power/>; 다음도 보라. Michael Pröbsting: South Korea's Transformation into an Imperialist Power, in the academic journal International Critical Thought (Volume 11, 2021 - Issue 2), <https://doi.org/10.1080/21598282.2021.1924071>.

[7] 다음 논문들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The Kashmir Question and the Indian Left Today, 26 September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kashmir-question-and-indian-left-today/>; India: A Prison House of Nations and Lower Castes (On the Reasons for Modi's Coup in Kashmir). Essay on the social and national contradictions of Indian capitalism and the rise of Hindutva chauvinism, 16 August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india-is-a-a-prison-house-of-nations-and-lower-castes/>; 다음도 보라. Michael Pröbsting: Is India a New Emerging Great Power? In the academic journal Critique: Journal of Socialist Theory (Volume 48, Issue 1, 2020), <https://www.tandfonline.com/doi/full/10.1080/03017605.2019.1706783>; <https://doi.org/10.1080/03017605.2019.1706783>; 같은 저자의 다음 논문도 보라. India: A Regional Power With Failed Ambitions, in the academic journal Problems In Political Economy (Vol. 4. 2020), <https://yadi.sk/i/kyqjrL4Y74im8A>

[8] 강대국 패권쟁투에 대한 RCIT의 분석으로는,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 별도 하위 섹션에 있는 문헌을 보라.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russia-as-imperialist-powers/>. 특히 다음 책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Anti-Imperialism in the Age of Great Power Rivalry. The Factors behind the Accelerating Rivalry between the U.S., China, Russia, EU and Japan. A Critique of the Left's Analysis and an Outline of the Marxist Perspective, RCIT Books, January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anti-imperialism-in-the-age-of-great-power-rivalry/> [[<< 강대국 패권쟁투 시대에 반제국주의>>](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book-anti-imperialism-in-the-age-of-great-power-rivalry/)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book-anti-imperialism-in-the-age-of-great-power-rivalry/>]. 세계무역전쟁에 관한 우리의 많은 문서들이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 별도 하위 페이지에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llection-of-articles-on-the-global-trade-war/>. RCIT는 강대국 패권쟁투 관련 문서들을 정기적으로 발표한다. 다음의 우리 최근 팸플렛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A Really Good Quarrel”. US-China Alaska Meeting: The Inter-Imperialist Cold War Continues, 23 March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us-china-alaska-meeting-shows-continuation-of-inter-imperialist-cold-war/> [[<제국주의 간 냉전은 어떻게 바이든 하에서도 계속되고 있나>](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us-china-alaska-meeting-shows-continuation-of-inter-imperialist-cold-war/)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us-china-cold-war-continues-after-alaska-meeting/>]

[9]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No to chauvinist war-mongering by Japanese and Chinese imperialism! 23.9.2012,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no-war-between-china-and-japan/>

[10]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Down with the Imperialist Trade War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Down with all chauvinist boycott campaigns! Class War instead of Trade War! Joint Statement of the Revolutionary Communists of South Korea and the RCIT, 19 July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trade-war-between-japan-and-south-korea/> [[<한·일 제국주의 무역전쟁 분쇄!>](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trade-war-between-japan-and-south-korea/)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trade-war-between-japan-and-south-korea/>]

[11]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CIT: China-India Border Conflict: Down with Chauvinist Warmongering on Both Sides! Support the national rights of the Kashmiri and the Nepalese people! 28 May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china-india-border-conflict-down-with-chauvinist-warmongering-on-both-sides/>; Michael Pröbsting: The China-India Conflict: Its Causes and Consequences. What are the background and the nature of the tensions between China and India in the Sikkim border region? What should be the tactical conclusions for Socialists and Activists of the Liberation Movements? August 2017,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india-rivalry/>

[12]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Korea: There Is No Peace Without Overthrowing Imperialism and the Rule of Capital! Peace through the Proletarian Socialist

Revolution! Joint Statement of the Revolutionary Communists of South Korea and the RCIT, 8 March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rcit/joint-statement-on-south-korean-imperialism/> [<한반도 : 제국주의와 자본의 지배를 타도하지 않고는 평화는 없다!>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joint-statement-on-south-korean-imperialism/>]; 홍수천: 한반도 전쟁 위기와 미·중 제국주의 패권 쟁투 (Hong Su-Cheon: War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Rivalry between US and Chinese Imperialism, Article in Korean language, Spring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crisis-on-korean-peninsula-us-and-chinese-imperialism/>

[13]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CIT: India-Pakistan: Defeat the War Mongers! Free Kashmir! 27 February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india-pakistan-defeat-the-war-mongers-free-kashmir/>

[14]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Next Time We Will Bomb the Target”. Shooting incident in Black Sea between UK and Russia shows that capitalism in decay is stumbling towards war, 24 June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russia-uk-next-time-we-will-bomb-the-target/> [<영·러 흑해 포격 사건> “다음번엔 바로 목표물에 폭격할 것이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russia-uk-next-time-we-will-bomb-the-target/#anker_1]

[15]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CIT: Myanmar: Popular Masses turn against Chinese Imperialism! For an indefinite general strike and armed insurrection to bring down the dictatorship! No illusions in US and European imperialism! 16 March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myanmar-popular-masses-turn-against-chinese-imperialism/> [<왜 항쟁의 화살은 중국 제국주의한테까지 번졌나>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myanmar-popular-masses-turn-against-chinese-imperialism/>]

[16]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Myanmar: Popular Anger also Turns Against Japanese Corporations. Once more, Stalinist slander against a popular democratic uprising is refuted by reality, 17 March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myanmar-popular-anger-also-turns-against-japanese-corporations/> [<항쟁의 화살이 일본 제국주의한테도 번지다>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myanmar-popular-anger-also-turns-against-japanese-corporations/>]

[17] RCIT는 아랍 혁명에 관한 수많은 문서를 발표했다. 다음 링크로 들어가서 그 문서들을 볼 수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 아랍 혁명 제2 물결에 관한 우리 문서들을 다음 링크로 들어가서 볼 수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collection-of-articles-on-2nd-wave-of-great-arab-revolution/>. 시리아 혁명에 관한 우리의 수많은 책자와 성명과 기사를 다음 링크로 들어가서 볼 수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collection-of-articles-on-the-syrian-revolution/>. 그리고 최근 가자지구 전쟁과 3차 인티파다에 관한 우리 문서들을 다음 링크로 들어가서 볼 수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collection-of-articles-on-fourth-gaza-war/>.

[18] 다음을 보라. RCIT: India: Victory to the “Dilli Chalo” Uprising! Poor peasants are waging the largest struggle in modern history against the reactionary BJP government, 22.12.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india-victory-to-the-dilli-chalo-uprising/>

[19] RCIT는 태국 민중시위에 관한 여러 문서를 발표했다. 다음을 보라. Thailand: Another Bloody Crackdown Looms against the Democracy Movement! Down with the military dictatorship! Abolish the monarchy! 15 October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thailand-another-bloody-crackdown-looms-against-the-democracy-movement/>; Laurence Humphries: Thailand: Over 100,000 Students and Workers demonstrate against the King and the Regime. For the Removal of Prayut Chan-o-cha and his Regime! Abolish the Monarchy of King Vajiralongkorn! 2 October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thailand-protests-october/>

[20] RCIT는 홍콩 민중항쟁에 관한 여러 문서를 발표했다. 다음을 보라. China / Hong Kong: The Beginning of the Counterrevolution. The new National Security Law represents a full-scale assault on democratic rights by the Stalinist-Capitalist regime! 1 July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china-hong-kong-the-beginning-of-the-counterrevolution/>; 이 성명의 말미에 제시된 이 문제에 관한 다른 참고문헌들을 보라.

[21] 카슈미르 해방투쟁에 관한 우리 문서들을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 상의 별도 하위 섹션에서 보라.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collection-of-articles-on-the-liberation-struggle-in-kashmir/>

[22] 우리는 이 문제들이 혁명당 건설에 미치는 결과들을 여러 문서에서 다루었다.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Building the Revolutionary Party in Theory and Practice. Looking Back and Ahead after 25 Years of Organized Struggle for Bolshevism, RCIT Books, Vienna 2014,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rcit-party-building/>; 위에서 언급한 책 Anti-Imperialism in the Age of Great Power Rivalry [«강대국 패권쟁투 시대에 반제국주의»]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었다.

[23] 우리는 몇 차례 러시아 좌파에 대해 논한 바 있다. 다음을 보라. chapter VIII, XXIV, XXV and XXVIII in Anti-Imperialism in the Age of Great Power Rivalry [«강대국 패권쟁투 시대에 반제국주의» 8장, 24장, 25장, 28장]. 다음도 보라. Michael Pröbsting and Petr Sedov: Mr. Ichlov's Truth Barometer. A reply to a polemic against the RCIT by the Russian left-wing journalist Boris Ichlov, 7 September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europe/truth-barometer-reply-to-russian-journalist-boris-ichlov/>

[24] 이에 대해서는 다음 두 팸플릿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Is the Syrian Revolution at its End? Is Third Camp Abstentionism Justified? An essay on the organs of popular power in the liberated area of Syria, on the character of the different sectors of the Syrian rebels, and on the failure of those leftists who deserted the Syrian Revolution, 5 April 2017,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syrian-revolution-not-dead/> [«시리아 혁명: 민중항쟁이 내전으로 전화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pamphlet-is-the-syrian-revolution-at-its-end/>]; Syria and Great Power Rivalry: The Failure of the „Left“. The bleeding Syrian Revolution and the recent Escalation of Inter-Imperialist Rivalry between the US and Russia - A Marxist Critique of Social Democracy, Stalinism and Centrism, 21 April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syria-great-power-rivalry-and-the-failure-of-the-left/>.